

남북·북중·북러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권력의 자원

오종문
코리아연구원 연구원

- I. 전 세계 상호의존성의 발전과 남북·북중·북러 교역 현황
- II. 남북·북중·북러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비대칭 전략
- III. 북한의 시계추 외교와 권력의 자원

I. 전 세계 상호의존성의 발전과 남북·북중·북러 교역 현황

세계 정치에서 상호의존성은 국가 간 혹은 다른 국가에 속하는 행위자 사이에서 서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Keohane and Nye, 2011).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의 차이에 따라 경제, 정치, 사회 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정치학에서 상호의존론은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상호의존론은 경제 및 그 외 초국가적(trans-national) 교류 증대에서부터 1970년대 초 미·소 대탕트의 진전 및 세계경제의 혼란을 계기로 생겨나게 되었다. 상호의존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서방제국의 경제 대립이었던 미·소 ‘신냉전’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넘어서 현재에도 중요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야마모토 요시노부 저, 김영근 역, 2014).

남한과 북한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권하에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및 같은 연도 10월에 남북한물자교역지침 등 대북경제개방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과 거의 대등한 규모로 남북 교류가 진행됐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5·24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2010년도 이후 진행되는 남북 교역액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상품의 반·출입을 집계한 것이다. 남북교역은 민족 간의 거래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23억4,264만달러로 2013년 11억3,585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남북한 교역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적용하면 비중은 더 커진다.

러시아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국가였다.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 원유와 원자재, 공산품 등을 우호적인 가격에 제공했으며, 공장과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역관계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

러 교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UNCOMTRADE 무역자료에 의하면, 2013년 북러 교역액은 113백만달러로 2012년 70백만달러보다 61.42% 증가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통으로 기계류와 수송기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2015년 10월 13일 북한 리용남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알렉산드르 갈르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였다. 갈르슈카 장관은 북러 간 직교역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 물량 중 3분의 1(약 9억달러 상당)이 러시아 상품으로 상품 가격 인하와 상품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는 1990년대 이전 러시아를 제외한 제2의 교역 상대국이었으며, 1992년 남한과 중국의 수교로 북중 간 교역은 축소되기도 했다. 1999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부터 정치관계는 회복되었고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남한을 제외하면 약 89.1%를 차지하였으며, KOTRA는 2014년 북한의 중국 교역비중이 90.1%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였다. 2015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류원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참여하면서 북중 관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II. 남북·북중·북러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비대칭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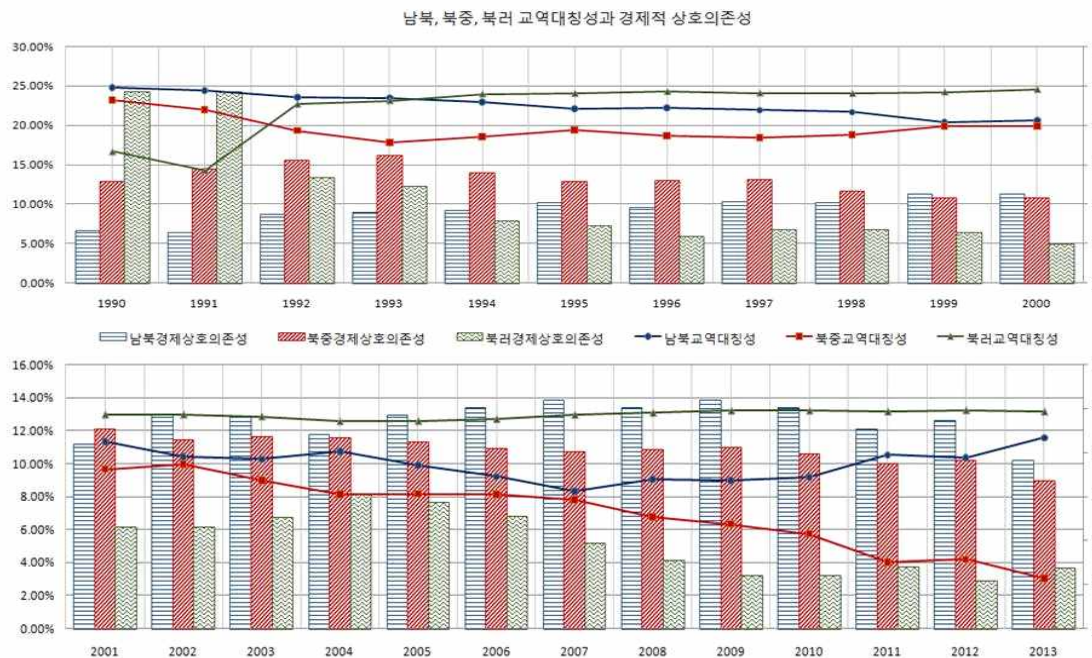
남북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1990년 6.61%에서 1995년 10.09%로 증가했다. 2007년에는 13.82%를 기록하며 남북 간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10.16%를 나타냈다. 2010년대 이후로 남북 간 상호의존성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중교역액이 남북교역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남북 간 상호의존성 비중이 높은 것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남북한 상호의존성이 높아도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여전히 낮다. 북한은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커도 중국과의 교역 비중에 비하면 낮은 편에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에서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비대칭 전략에 있다.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 정치와 경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북중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1990년 12.81%에서 1993년 16.16%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994년 7.84%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는 10.74%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북중 상호의존성은 2013년에는 8.93%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북중 간 무역 교역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비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이 북한과의 교역액보다 비중이 큰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아 양국 간 교역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서 상호의존성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비대칭적인 교역관계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도 교역을 중단시키지 않



으면서 권력의 자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러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1990년 24.14%, 1991년 21.23%로 북중, 남북 상호의존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러 상호의존성은 1994년 7.84%로 약 3배 이상 감소했으며 2000년에는 4.83%를 기록하였다. 북러 상호의존성은 2004년 8.09%까지 다시 증가했지만 2010년 3.15%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했다. 2011년도 이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며 2013년 3.64%를 기록했는데, 2013년 남북, 북중 상호의존성은 감소한 상황에서 북러 상호의존성만 다소 증가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여 진다.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위한 신극동전략에 나서고 있다.



주: Barbieri(1996)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측정 모형을 통해 나타냄.

자료: UNCOMTRADE; COW Trade 3.0; KIEP 동향분석속보;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자료.

III. 북한의 시계추 외교와 권력의 자원

2015년 북한의 '경제연구'에서는 대외경제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외경제교류의 경제적 효과성을 바로 타산하여 더 많은 실리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김세영, 2015).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그 비중이 점차 커질수록 실리를 타산하기 위해서 대외관계를 다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험을 증대시키려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자신의 권력의 자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적인 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시계추 외교를 벌이고 있다.

상호의존성의 비용으로 ‘민감성’(sensitivity)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이 발생한다. ‘민감성’은 정치적인 이유로 교류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경제 교류를 통한 한국가의 경제 변화가 다른 국가의 정부 또는 사회에 특별한(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성’은 상호의존성이 단절 혹은 제한했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손해(damage)를 의미한다(아마모토 요시노부, 2014). 중국은 1978~2011년 연평균 9.7%의 고속성장에서 2012년부터 7%대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态)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방식 등으로 전환했다. 이에 북한의 對중국 자원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민감적 상호의존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상호의존성의 비용으로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교역 중단으로 취약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한 경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교역, 위탁가공무역 중단 등에 의한 대외무역 손실과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남한의 경제적 피해액은 9조4천억 원으로 북한 2조4천억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컷뉴스 2013/11/2). 5·24조치로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은 증대한 반면 남한 기업만 더 큰 피해를 본 것이다. 남한은 경제적인 비용만 크게 발생시키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중국이 보고 있다.

국가별 상호의존성 관계에서 이익과 비용은 함께 발생한다. 상호의존성에서 이익과 비용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비용을 능가한다. 상호의존은 상호 이익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Keohane and Nye, 2011).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인 도발 등에 북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지만, 기업의 투자와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의존성 관계에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자국의 이익으로 활용하며 북한을 종속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면서 남북관계에 ‘스마트 파워’ 전략이 필요하다. Nye(2012)는 “스마트 파워는 강압과 응징을 앞세운 하드 파워와 설득과 유인을 내세운 소프트 파워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한다. 북한의 대남도발과 침투에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한 간 대화와 경제교류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 간 갈등으로 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은 오히려 남한에 더 큰 정치·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이다. 남북한 상호의존성을 조정해가면서 전략적으로 권력의 자원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2015/11/4)

※ 이 글은 2015년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제출한 ‘남북, 북중, 북러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대북협력 방향’ 논문을 정리·보완한 글입니다.



※코리아연구원(이사장: 박영재 / 원장: 김창수)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직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더 쉽습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